

배포 일시	2023. 2. 21.(화)		
담당 부서	광역교통정책국 광역교통경제과	책임자	과 장 김희천 (044-201-5080)
		담당자	사무관 박태현 (044-201-5082)
보도일시	2023년 2월 22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2. 22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알뜰교통카드, 부담은 줄이고, 혜택은 늘리고, 사용은 편하게! - 국토부 · 카드社 협력협약 체결,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카드사도 다양화

- 고물가 시기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알뜰교통카드의 지원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사용 가능한 카드사도 기존 6개에서 11개*까지 다양해진다.

* (기존) 신한, 우리, 하나, 로카, 티머니, DGB + (신규 참여) 국민, 농협, BC, 삼성, 현대

-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*로, 대중교통비를 월 최대 약 1~4만원 절감**할 수 있으며,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까지 (대중교통비의 약 10%, 월 최대 4만원) 받을 수 있어 이용 만족도가 높다.

* '23.2월 현재 기준, 전국 17개 시·도 및 173개 시·군·구에서 53만 명이 이용 중

** 대중교통 이용 시마다 마일리지를 적립한 후 매월 환급(또는 자동 청구할인)

- 최근에는 청년·저소득층에 대한 마일리지 혜택도 강화(1월~)하여, 고물가 시기에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등 정책효과가 매우 우수하다.

●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(23.1월~)

1회 교통요금 지출액	2천원 미만	2천원~3천원	3천원 이상	비고
일반 (월 최대, ×44회)	250원 (11,000원)	350원 (15,400원)	450원 (19,800원)	이동거리 800m, 월 44회 상한 카드사 10% 추가 할인 가능
청년층(신설) (월 최대, ×44회)	350원 (15,400원)	500원 (22,000원)	650원 (28,600원)	
저소득층(상향) (월 최대, ×44회)	350→ 500원 (22,000원)	500→ 700원 (30,800원)	650→ 900원 (39,600원)	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이성해)는 이러한 알뜰교통카드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자 저소득층 대상 적립 금액을 한층 더 **상향***(3월~)하고,

* 회당 마일리지 적립액 상향 → 현행 절감액 대비 **年 최대 11만원 추가 절감**

- 적립 한도를 늘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*(7월~)를 선보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은 적을 수 있도록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.

*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월 44회 → 60회 상향(월1~4만원 → 월1.5~6.6만원 절감)

- 또한, 최초 가입 시 주소지 검증 절차를 자동화*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던 불편을 없애고,

* 행정정보망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여도 주소지 자동 확인

- 출발·도착 버튼을 매번 누르지 않아도 마일리지 적립될 수 있도록 즐겨찾기 구간 설정 또는 도보 수 측정 방식을 도입하는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.

- 그 밖에도, 알뜰교통카드는 그간 가입할 수 있는 카드사가 많지 않아 이용자의 선택지가 적었던 만큼 카드사 확대를 위한 공모(1.17~2.14)를 진행하여 5개 신규 카드사*를 추가 모집하였으며,

* (기존) 신한, 우리, 하나, 로카, 티머니, DGB + (신규 참여) 국민, 농협, BC, 삼성, 현대

- 2월 22일(수) 협약식에서 총 11개 카드사와의 알뜰교통카드 플러스+ 협력 협약식*을 개최함으로써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할 예정이다.

* (일시/장소) 2월 22일(수) 10시,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(10층)

- 각 카드사는 알뜰교통카드의 마일리지에 더해 추가 대중교통비 할인 및 기타 생활 서비스 할인 등 차별화된 혜택을 구성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소비 패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알뜰교통카드를 출시한다.

* 신규 카드사는 알뜰교통카드 플러스+ 도입 시기인 7월부터 이용 가능

-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기존의 알뜰교통카드 협력 카드사 및 신규 참여 카드사의 대표이사,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,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고물가 시기가 지속되어 국민 생활 부담이 점차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, 알뜰교통카드로 국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어 다행”이며, “사실상 국내 대부분의 카드사가 함께하는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”라고 밝히는 한편,
 - “마일리지의 기본원칙은 부담은 줄이고, 혜택은 늘리고, 사용은 편하게 하는 것”이며, “그래서 알뜰교통카드는 마일리지를 쌓으면 직접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.”라고 하면서, “소위 ‘온국민 혜자카드’가 될 수 있게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”라고 하였다.
- 한편, 원 장관은 카드사와의 협약식을 진행하기에 앞서 알뜰교통카드를 직접 이용해 본 청년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며, 생생한 이용 후기를 듣고 향후 알뜰교통카드의 발전 방향 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.
 - 고물가 시기에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앱테크*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, 알뜰교통카드도 청년 이용자 수 비율**이 높은 만큼 향후 개선 방향 등에 대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고 갈 것으로 기대된다.
 - * 어플리케이션(App)과 재테크의 합성어로, 앱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활동을 지칭
 - ** 전체 이용자 중 20대(40%)·30대(34%) 등 젊은 층이 약 74% 해당('22년 성과 분석 결과)
 - 협약식 이후에는 직접 마일리지를 적립해보는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. 청년들과 함께 거리를 걷고 대중교통을 탑승해보면서 알뜰교통카드 이용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는 계획이다.
- 원 장관은 적립 체험 행사 이후, “알뜰교통카드가 청년들의 필수 생활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는 한편,”
 - “중·장년층을 포함한 전 연령층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교통카드로 발전시킬 것”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	책임자	과 장	김희천 (044-201-5080)
		담당자	사무관	박태현 (044-201-5082)
<공동>	한국교통안전공단 디지털혁신처	책임자	처 장	임동욱 (054-459-7260)
		담당자	책임연구원	심상우 (054-459-7441)



참고

알뜰교통카드 사업 개요

- (사업개요)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해야 하는 거리(보행·자전거 등)만큼 마일리를 지급(공공재원)하고, 민간 카드사가 추가 할인(약 10%)



< 추진경과 >

- '17.4. : “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을 통한 교통비 30% 절감” 공약 제시
- '18.4.~8. : 세종시 시범사업 / '18.4.~'19.2.: 울산·전주 시범사업
- '19.6.~12. : 전국 11개 주요도시 시범사업 시행
- '20.1.~ : 전국 128개 시·군·구에서 본사업 시행
- '23.2.(현재): 전국 173개 시·군·구에서 53만명 규모로 시행 중

- ① (마일리지) 대중교통 이용 시마다 최대 250~900원 적립(이동거리 비례)

① 기본 마일리지

기본마일리지	2천원 미만	2천원~3천원	3천원 이상	비고
일반층 (월 최대, ×44회)	250원 (11,000원)	350원 (15,400원)	450원 (19,800원)	이동거리 800m, 월 44회 상한 (→60회, 7월~)
청년층* (월 최대, ×44회)	350원 (15,400원)	500원 (22,000원)	650원 (28,600원)	
저소득층** (월 최대, ×44회)	500원 (22,000원)	700원 (30,800원)	900원 (39,600원)	
	↓ (3월부터 시행 예정)			
	700원 (30,800원)	900원 (39,600원)	1,100원 (48,400원)	

* 「청년기본법」에 따른 만19~34세

** 「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② 추가 마일리지

구분	조건	추가혜택
미세먼지 마일리지	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에 이용 시	기본 마일리지의 100% 추가
이벤트 마일리지	식목일(4.5), 환경의날(6.5) 등 7개 환경·교통 관련 기념일	기본 마일리지의 100% 추가

- ② (카드할인) 민간 협력 카드사에서 교통비 10% 할인(전월실적 충족 시)

- (사업규모) 현재 173개 시·군·구*에서 53만명 규모로 시행('23.2) 중이며, 국비('23 예산: 317억원)와 지방비를 1:1 매칭하여 재원 마련

* 서울, 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, 대전, 울산, 세종, 경기, 충남, 제주, 충북(4), 전북(6), 전남(9), 경북(10), 경남(18), 강원(3) (괄호 안은 참여 시군 수)

참고

알뜰교통카드 이용편의성 개선 및 확대 방안

구분	현행	개선	일정
가입절차 간소화	주민등본 등 서류 직접 앱에 등록	-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확인 자동화 -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필요 서류 자동 확인(행정정보망 연계)	215~ 시행 중
이용편의 개선	로그인 시 마다 회원정보 입력	- 소셜로그인(카카오, 네이버 등) 연동 방식 도입 - 로그인 시 아이디·비밀번호 입력 불필요	
	매번 앱 실행 필요 (출·도착 버튼*) * 이동거리 산출 목적	- 출발·도착 입력 의무 → 선택사항으로 변경 - 미리 설정한 즐겨찾기 구간은 출·도착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자동 적립 - 스마트기기의 도보 수 측정 기능 활용	
저소득층 지원확대	회당 500~900원 적립	- 회당 700~1,100원으로 적립금 확대 - 현행 절감액 대비 年 최대 11만원 추가 절감	3월~
모바일페이 도입	모바일페이 사용 시 마일리지 적립 불가 (삼성페이 등)	- 모바일페이 방식 도입 - 삼성페이 등 모바일페이에 실물 알뜰교통카드를 등록하여 모바일 이용 가능	4월~
알뜰교통카드 플러스+	카드사 일부 한정 (신한·하나·우리 등)	- 협력 카드사 대폭 확대 (기존) 신한, 하나, 우리카드, 티머니, 로카, DGB (추가) 삼성, 현대, 국민, 농협, BC카드	7월~
	마일리지 월 최대 44회 적립	- 마일리지 적립한도 月 44→60회 상향 - 월 1~4만원 → 월 1.5~6.6만원 절감	